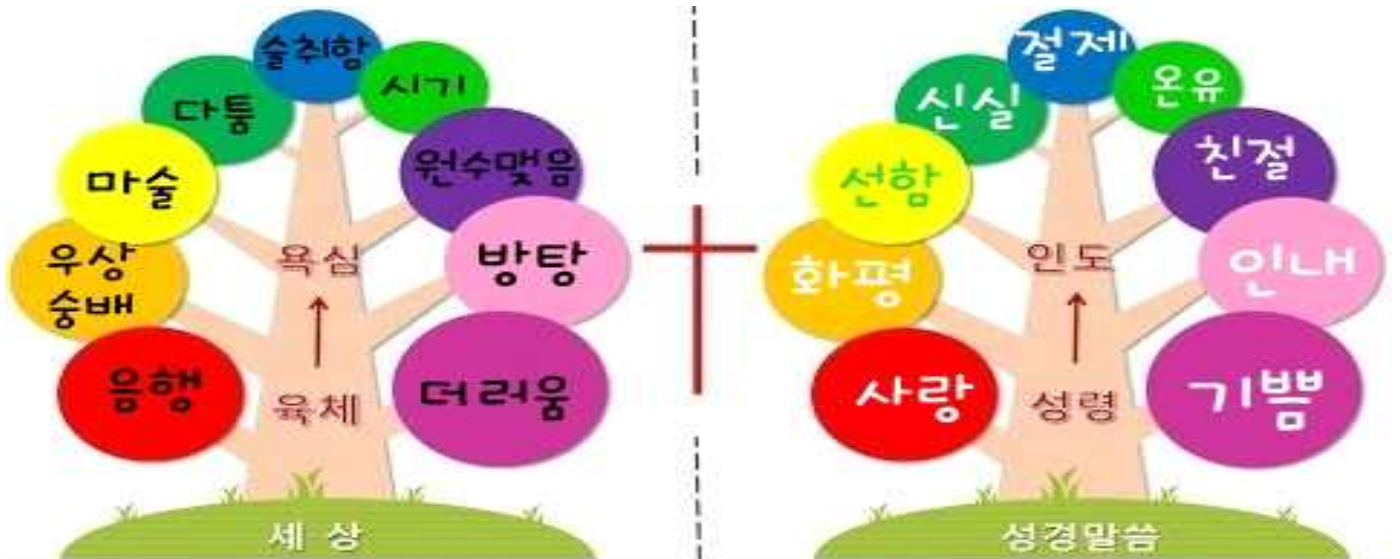


## 성령의 인도 VS 육체의 행실

갈라디아서 5:16~26



(육체의 행실)

(성령의 인도)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성령님의 가르침도 알지만 그리스도인으로써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잃어버렸습니다.

바울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 믿는 너희들을 보면 걱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고 말씀하시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붙잡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 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따라야 할 분명한 기준과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는 '거스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7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17절 말씀이 강조하는 것.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 =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로 살아가는 삶 = 육체를 거스릅니다.

##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절-21절

**19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20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21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음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경고의 메시지:**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23절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23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일을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행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표시입니다.

어떻게 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24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죽었다는 선언입니다.

또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그 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일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결론: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합니다. 육체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면 그에 따른 열매가 맺힙니다. 또한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